

한국 건설산업의 현재와 미래

2010. 3. 18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4주제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창출전략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주요 내용

1.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소진?
2. 건설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
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구조 분석
4.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 분석
5.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6. 일자리 창출 전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소진?

최근 건설투자에 비해 건설업취업자수 급감

- **일자리 규모는 생산물 규모에 의해 규정**
 -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생산물 수요에 의한 파생수요(derived demand)**
- **최근 건설업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건설업취업자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건설투자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커다란 감소임.
- **일자리의 보고(寶庫) 또는 실업의 완충지대로 불리던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소진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임.**

일자리 창출 잠재력 진단 및 창출 전략 모색

-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진단**하고 **최근의 일자리 동향을 파악**한 후,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함.

사용되는 개념의 개요

- **건설산업의 일자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건설업취업자**’를 대리변수로 활용
 - 건설기술관리인력과 건설기능인력으로 대별하여 사용함.
- **건설기술관리인력** : 본사 또는 현장에서 간접적인 생산 활동에 종사
 - 통계청의 직종 중 ‘전문가 + 기술공 및 준전문가 + 사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이며 건설업취업자 중 **약 25~30%를 차지**
 - 대체로 건설업체 정규직이나 기간제 계약직 형태로 취업해 경기에 덜 민감함.
- **건설기능인력** : 건설현장에서 직접적인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직을 의미함.
 - 통계청 조사의 직종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이며 건설업취업자 중 **약 70~75%를 차지**
 - 대체로 하도급구조의 말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경기에 민감함.



주요 내용

1.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소진?
2. 건설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
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구조 분석
4.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 분석
5.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6. 일자리 창출 전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건설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

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건설산업의 특성

상당한 건설생산물 및 수평-수직적인 현장

➢ 기계화 및 자동화에 한계

- 상당 부분의 건설 생산 과정은 불가피하게 사람이 직접 수행
- 이것이 바로 일자리의 원천
- 인류가 주거공간 및 물류공간 그리고 SOC 등의 생산물을 필요로 하는 한 항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
- ❖ 제조업은 기계화 및 자동화 용이

해외 이전 불가 해외 이전 불가

➢ 국내에서 일자리 유발

- 건설생산물은 지상 또는 지하의 토대와 견고히 결합되어야 하는 특성상 최종 목적물의 소재지에서 대부분 생산 활동이 수행될 수밖에 없음.

비숙련인력의 일자리도 존재

➢ 타업종의 실업자에게도 일자리 제공 가능

- 실업대책 수단으로서 효과적

수입유발이 적고 한계소비성향 높은 저소득 근로자 다수

➢ 내수 진작

- 2007년 건설업 수입유발계수는 서비스업보다는 높으나 제조업과 전산업 평균보다는 낮음(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건설업 취업자 중 70~75%를 차지하는 건설기능인력의 2009년 연간 소득은 약 1,700만원으로 추정됨(2009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공공부문이 주요 발주자

➢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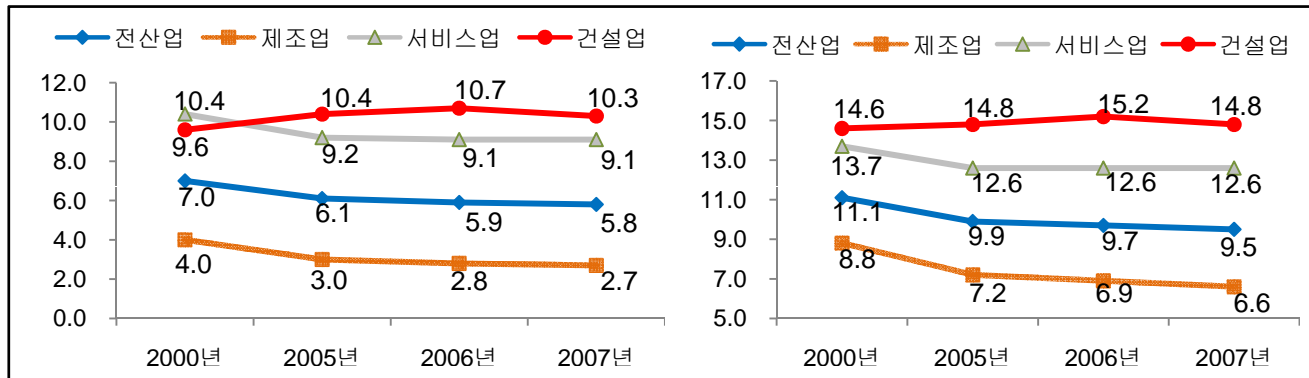
- 대체로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40%에 해당하므로 정부의 정책적 통제 아래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 가능함.

2. 건설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

나. 일자리 창출 관련 노동계수의 변화 : 2007년 고용표 분석 결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큰 건설업의 노동계수

〈주요 산업별 고용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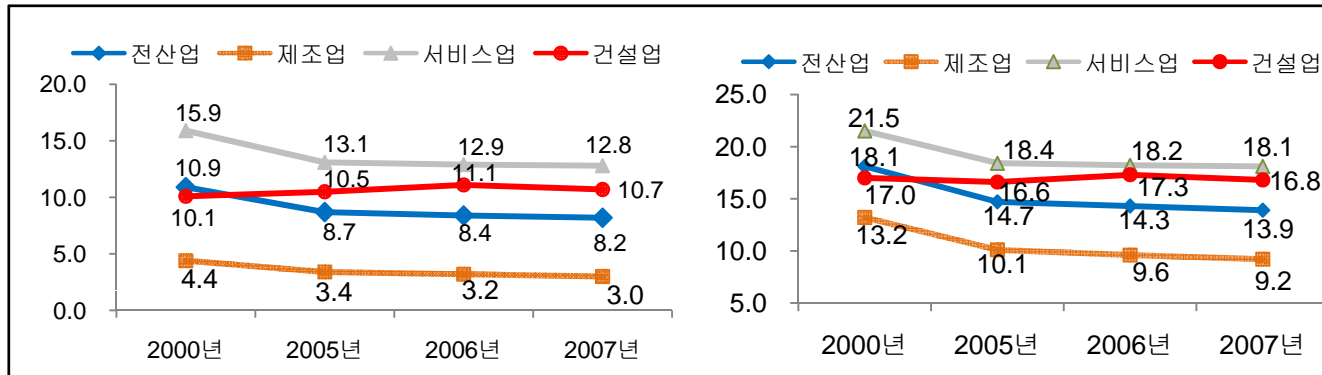
고용계수

불변 가격 산출액 10 억 원 당
소요되는 피용자 수 [피용자
수(명) ÷ 산출액(10억원)]

고용유발계수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산업에서 직간접적
으로 유발되는 피용자 수

〈주요 산업별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추이〉



취업계수

불변가격 산출액 10억원 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 [취업자
수(명) ÷ 산출액(10억원)]

취업유발계수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20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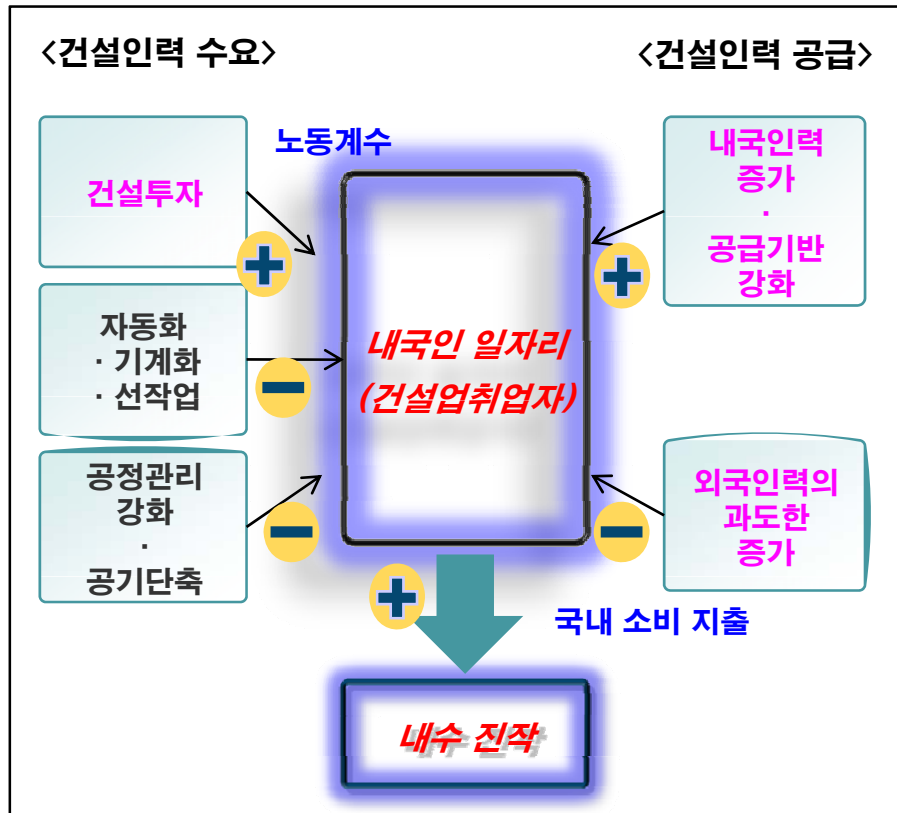
➤ 2000년에 비해 2007년 건설업의 노동(유발)계수 증가

⇒ 타 산업에 비해 큰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 확인 가능

2. 건설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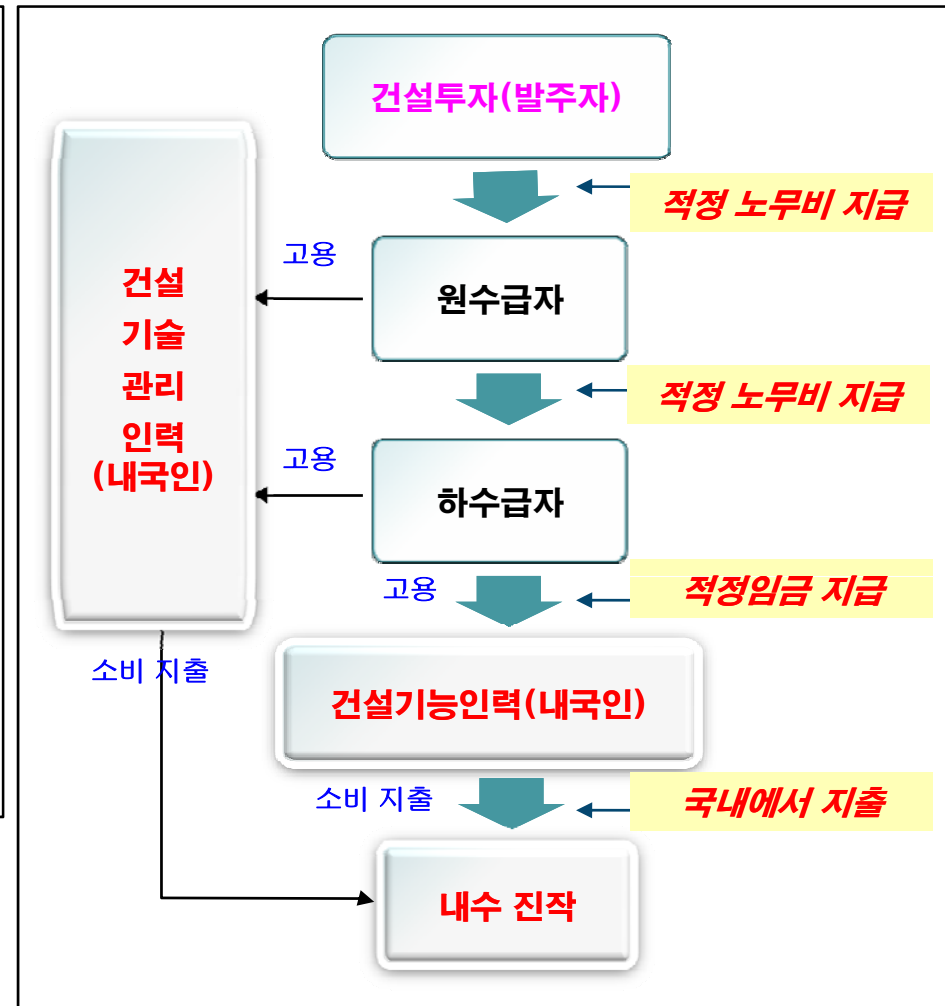
다.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경로

건설산업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 ✓ 합리적인 자동화 · 기계화 · 선작업과 공정관리 강화 · 공기단축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임.
- ✓ 보완적인 수준의 외국인력 투입 역시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임.

건설투자가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에 이르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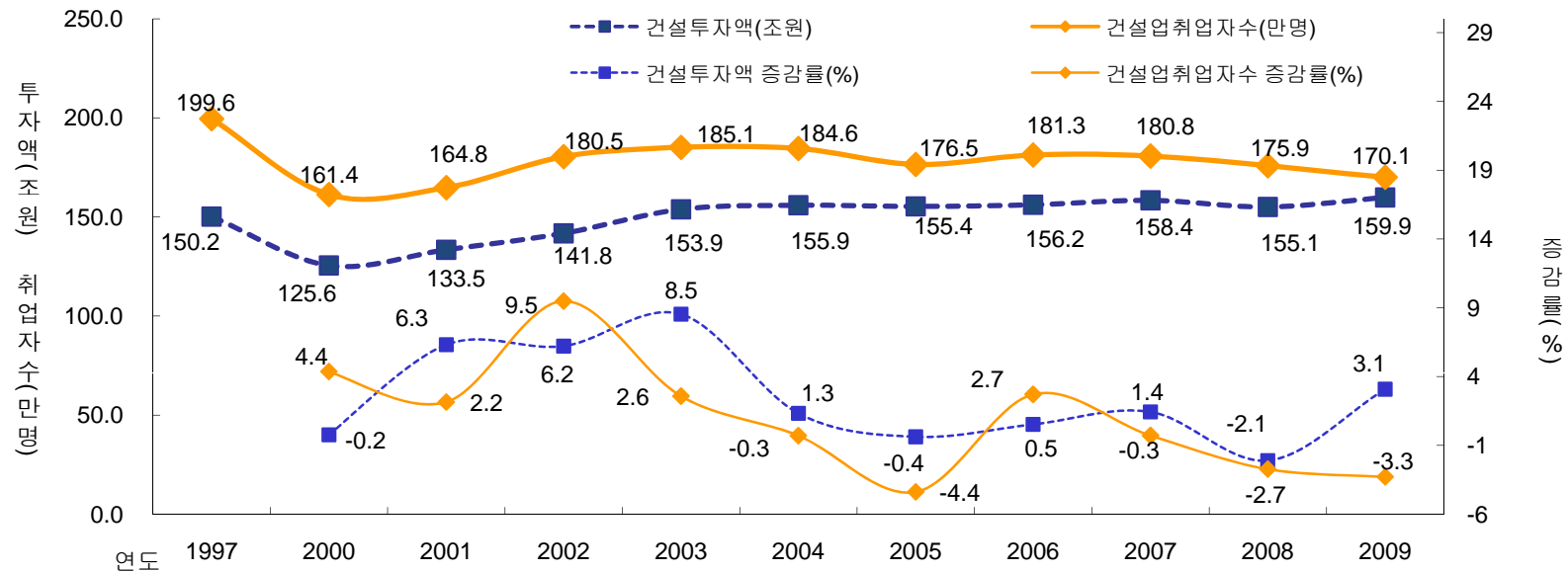
주요 내용

1.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소진?
2. 건설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
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구조 분석**
4.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 분석
5.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6. 일자리 창출 전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구조 분석

가. 건설투자 및 건설업취업자수 추이

건설투자 및 건설업취업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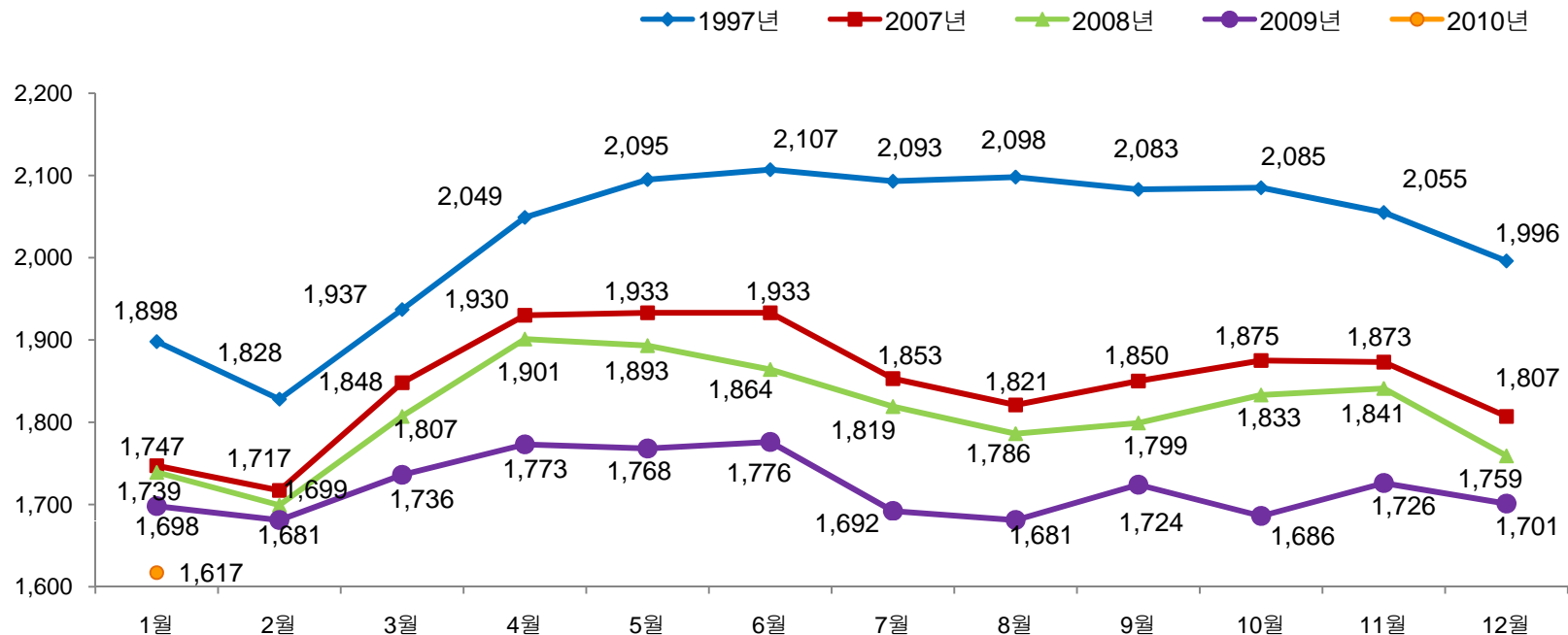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건설투자는 2005년 불변가격)

- 건설투자 규모는 2000년부터 지난 10년간 27.3% 증가(2005년 불변가격 기준)한 데 비해 건설업취업자수는 5.4% 증가
- 1997년과 비교하면 건설투자는 6.5% 증가했으나, 건설업취업자수는 14.8% 감소
 - 건설투자 1조원 당 건설업취업자수를 환산해 보면 2000년에는 1.29(만명/조원)이던 것이 2009년에는 1.06(만명/조원)으로 약 18% 감소한 셈이며, 1997년에는 1.33(만명/조원)이던 것이 2009년에는 20% 감소

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구조 분석

가. 건설투자 및 건설업취업자수 추이

최근 월별 건설업취업자수 변동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2007년 8월 이래 2010년 1월까지 30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
- 1997년 동월과 비교하면 적게는 약 15만 명(2월) 많게는 42만 명(8월)까지 감소

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구조 분석

나. 일자리 구조 변화 : 일자리 감소 직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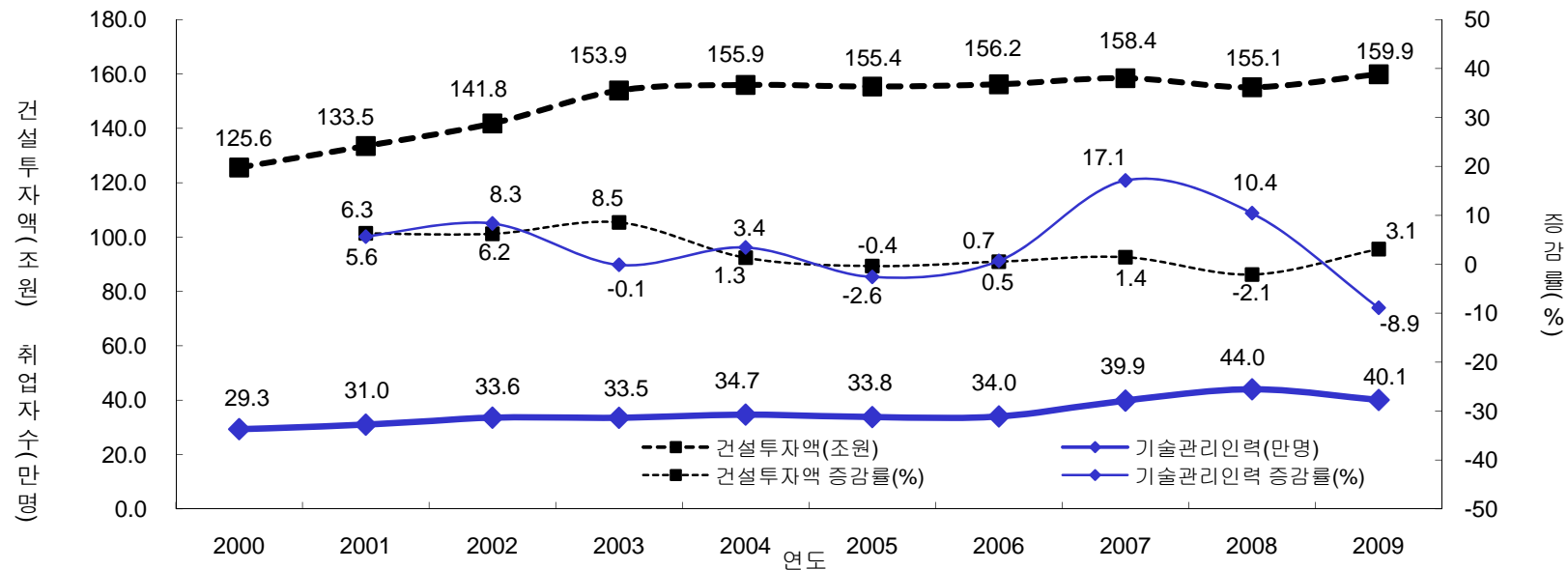
구 분	2000	2001 < 2000년 대비 변화 >	건설업취업자와 직종별 구성 변화				2006	2007	2008	2009
인 원 수(명)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95,349	110,282	107,209	107,596	84,901	112,262	112,262	105,590	106,203	100,945
전문가	37,970	48,789	56,028	46,915	47,377	38,785	44,454	46,318	-	-
기술공 및 준전문가	96,397	98,562	89,873	107,023	114,000	103,359	120,137	143,812	183,658	161,780
사무종사자	159,110	162,662	189,933	181,506	185,609	195,848	175,701	208,448	256,521	238,739
서비스종사자	4,755	1,965	1,102	2,168	1,754	1,334	1,230	1,491	1,429	-
판매근로자	0	2,906	3,172	2,446	3,942	5,348	3,447	2,135	10,587	21,441
농업임업및 어업숙련종사자	1,472	2,276	5,611	9,332	2,603	2,074	5,252	4,826	8,102	7,19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68,752	786,410	893,847	877,700	872,454	884,634	897,151	845,315	755,991	759,571
장치기계조작및 조립 종사자	141,905	137,480	137,414	148,020	119,658	143,090	148,766	128,603	138,255	149,227
단순노무 종사자	307,857	296,960	320,516	368,648	414,079	278,494	304,655	321,134	298,048	261,849
계	1,613,567	1,648,292	1,804,705	1,851,354	1,846,377	1,765,228	1,813,055	1,807,673	1,758,795	1,700,749
구 성 비(%)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9	6.7	5.9	5.8	4.6	6.4	6.2	5.8	6.0	5.9
전문가	2.4	3.0	3.1	2.5	2.6	2.2	2.5	2.6	-	-
기술공 및 준전문가	6.0	6.0	5.0	5.8	6.2	5.9	6.6	8.0	10.4	9.5
사무종사자	9.9	9.9	10.5	9.8	10.1	11.1	9.7	11.5	14.6	14.0
서비스종사자	0.3	0.1	0.1	0.1	0.1	0.1	0.1	0.1	0.1	-
판매근로자	0.0	0.2	0.2	0.1	0.2	0.3	0.2	0.1	0.6	1.3
농업임업및 어업숙련종사자	0.1	0.1	0.3	0.5	0.1	0.1	0.3	0.3	0.5	0.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47.6	47.7	49.5	47.4	47.3	50.1	49.5	46.8	43.0	44.7
장치기계조작및 조립 종사자	8.8	8.3	7.6	8.0	6.5	8.1	8.2	7.1	7.9	8.8
단순노무 종사자	19.1	18.0	17.8	19.9	22.4	15.8	16.8	17.8	16.9	1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2008년부터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 통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구조 분석

나. 일자리 구조 변화 : 일자리 감소 직종 분석

건설투자 및 건설기술관리인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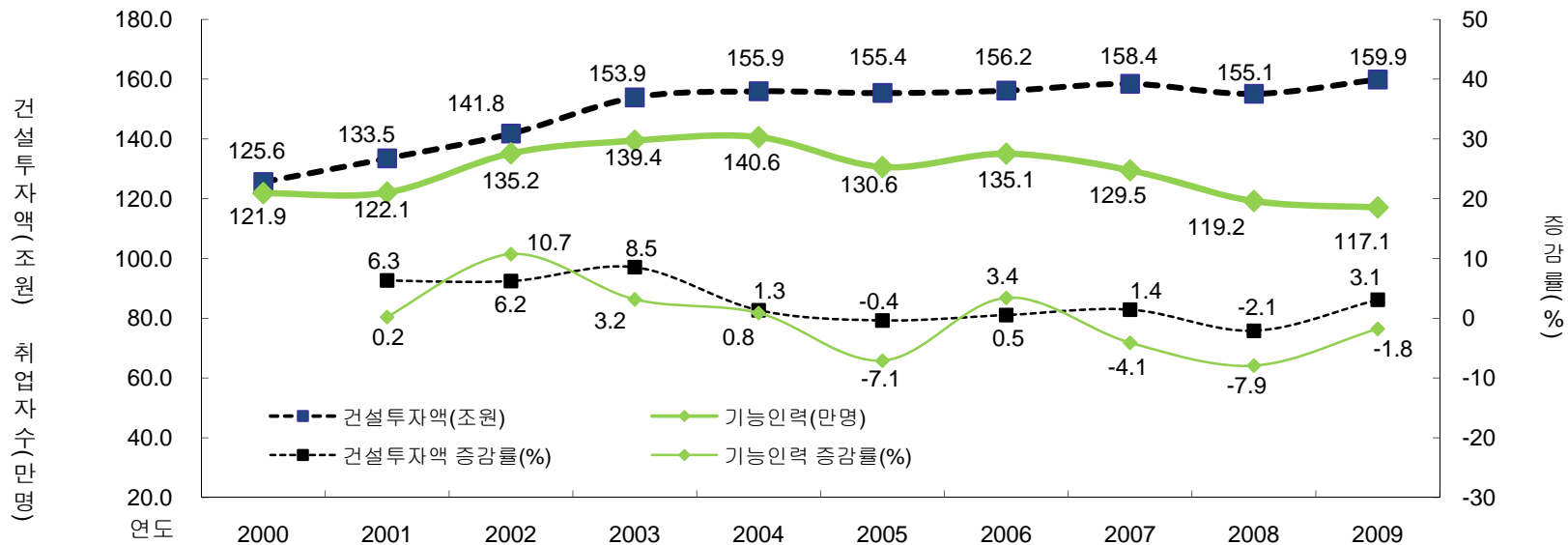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건설투자는 2005년 불변가격)

- 기술관리인력은 2000년부터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2009년에는 2000년에 비해 36.9%가 증가함. 이것은 동기간 건설투자 증가율 27.3%를 상회하는 것임.
- 2007년과 2008년에는 건설투자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는 조정 국면을 맞고 있는 양상임.

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구조 분석

나. 일자리 구조 변화 : 일자리 감소 직종 분석

건설투자 및 건설기능관리인력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건설투자는 2005년 불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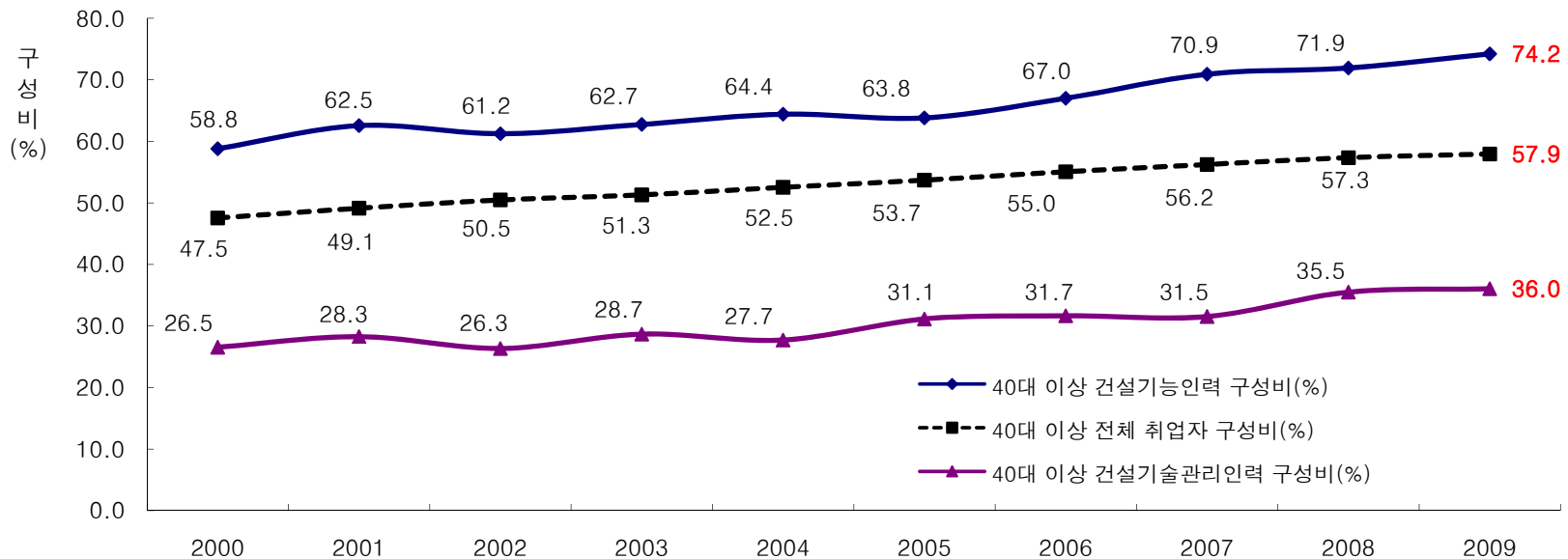
- 기능인력은 2002년 부터 크게 증가하여 2004년 정점에 달한 후 2005년에는 10만명이 급감함. 2009년에는 2000년에 비해 3.9%가 감소함. 동기간 건설투자 증가율 27.3%와 상반된 모습임.
- 건설투자 추이와 비교해 보면 2004년까지는 유사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5년 이후 건설투자액에 미치지 못함. 특히, 2007년~2009년 사이의 감소폭이 큼.

요약 및 시사점 : 일자리 감소의 주원인은 건설업취업자 중 기능인력 감소

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구조 분석

다. 일자리 창출 기반의 악화 : 고령화

고령화에 의한 건설기능인력 기반 악화 ⇒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불투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2009년 12월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 구성비는 57.9%임. 건설기술관리인력은 36.0%로 그 비중이 낮은 데 비해 건설기능인력은 74.2%로 매우 높음.
-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가 10.4% 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건설기술관리인력의 경우 9.5% 포인트 증가하고 건설기능인력은 15.4% 포인트나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름.



주요 내용

1.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소진?
2. 건설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
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구조 분석
4.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 분석
5.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6. 일자리 창출 전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 분석

가.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 원인 진단

건설현장 고용행태로부터 일자리 감소 원인의 단초 발견

- **삭감된 노무비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 : 현장실무자들과의 면담 결과
 - **작업 팀 감축** : 예컨대, 통상 10명인 작업 팀을 7~8명으로 축소
 - **저임금근로자 투입** : 고임금의 A급 대신 중/저임금의 B급 투입
 - **내국인력을 외국인력으로 대체** : 순응적인 저임금 외국인력 투입
- 위의 세 가지 방식 중 내국인의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응 방식은 작업 팀 구성원의 감축과 외국인력에 의한 내국인 대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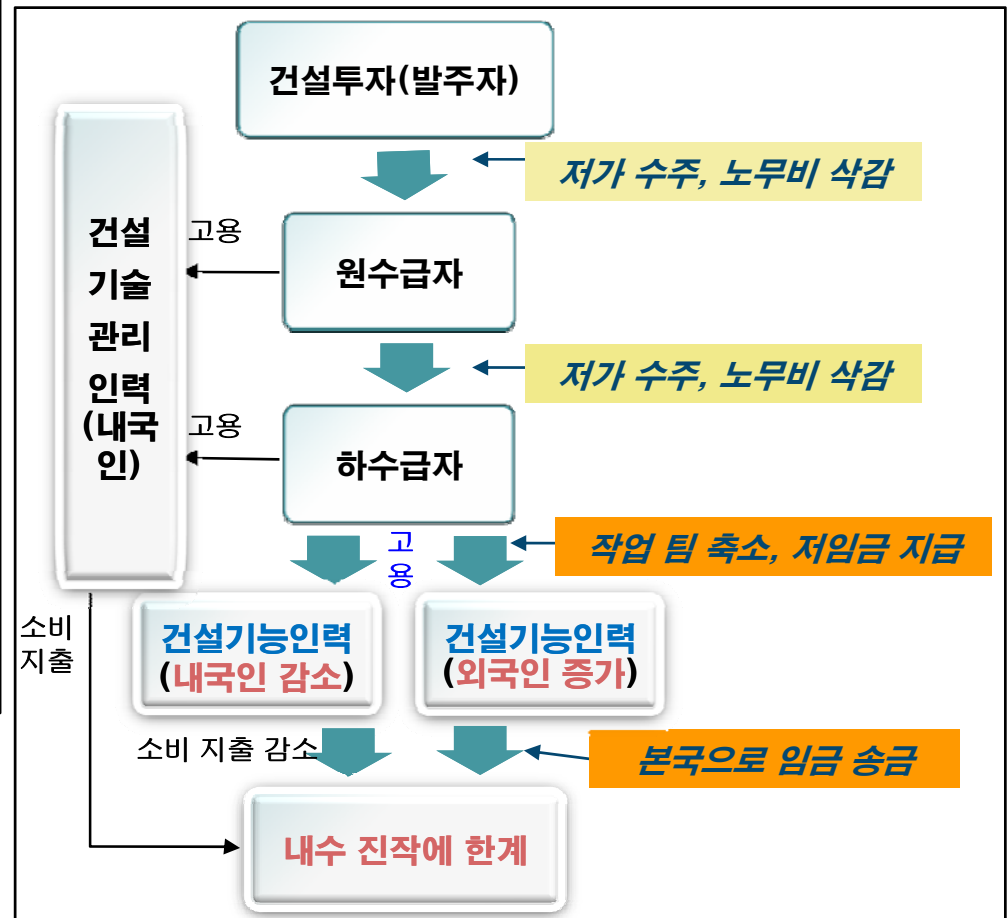
일자리 수요 감소

작업 팀 축소 및 무리한 공기단축

과도한 노무비 삭감

가.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 원인 진단 : 과도한 노무비 및 공사비 삭감 억제 기제 미흡

노무비 삭감이 일자리 감소 및 내수 감소에 이르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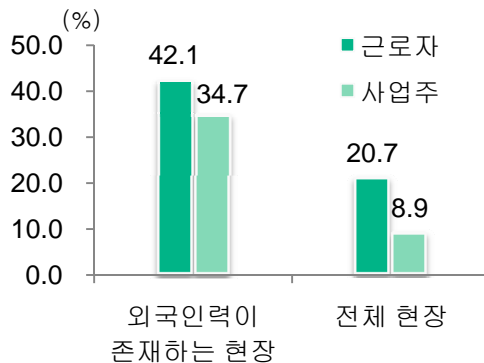
18

4.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 분석

나.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대체 및 내수 진작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규모 추정

〈건설현장의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력 비율〉



〈2009년 건설근로자 수급 차이 : 전체〉

연도	건설투자 전망 (2005년 불변액 기준)	인력 수요 (A)	인력 공급			수급 차이 ^{주)}	
			계	내국인 공급	외국인 공급	내국인 수급 차이	전체 수급 차이
			(B)	(B ₁)	(B ₂)	(B ₁ -A) (보완적 투입)	(B-A)
2009	1,580,501	1,352,321	1,475,326	1,283,547	191,779	-68,774	123,005

주 : 수급 차이에서 음수(-)는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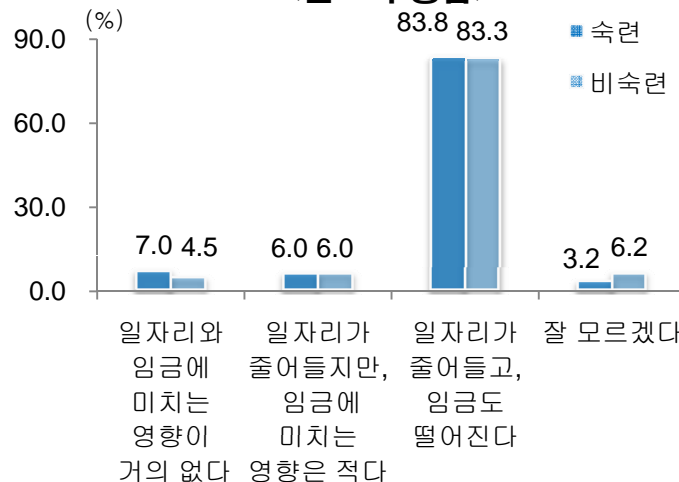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03년 11월 기준으로 추정했던 103,320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임.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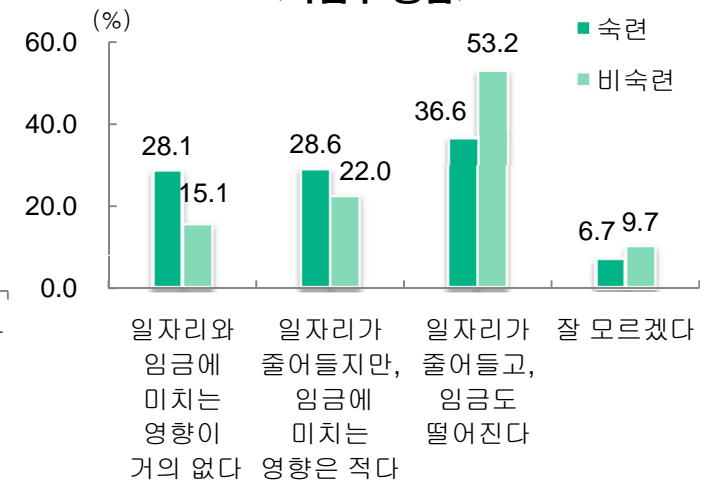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특히, 비숙련인력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이 큼을 시사함.**

▶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임금 저하 현상은 저가 수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시사함.**

〈근로자 응답〉



〈사업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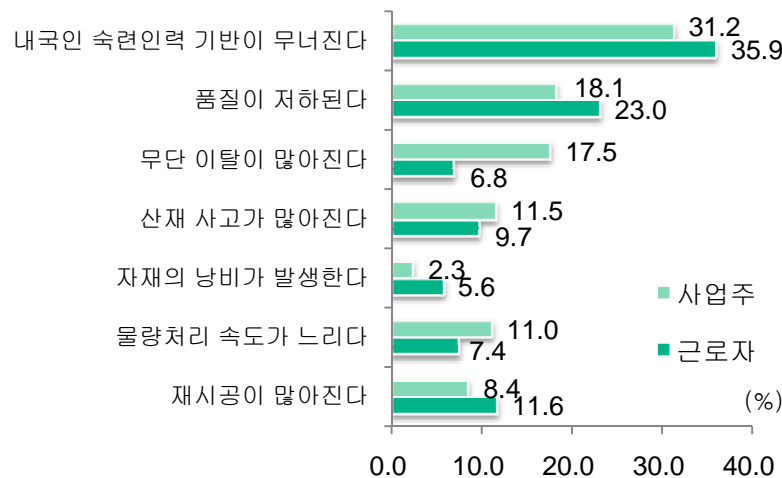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200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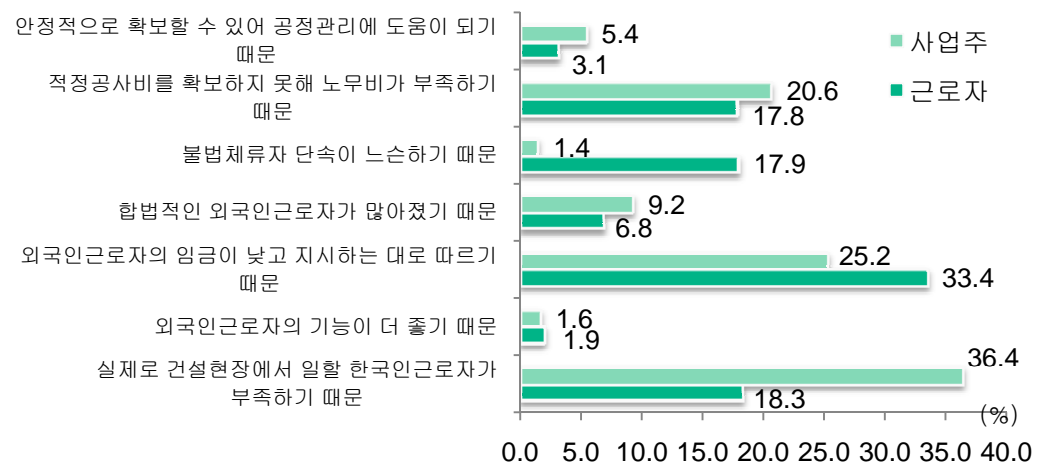
4.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 분석

나.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대체 및 내수 진작 미흡

외국인근로자가 투입이 많아질 경우 우려되는 사항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2009. 7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내국인 숙련인력 기반이 무너진다.’와 ‘품질이 저하된다.’라는 응답이 많음. 그 외에도 ‘산재 사고 증가’, ‘재시공 증가’ 등에 대한 응답도 적지 않음.
- 즉, 과도한 외국인력 투입에 대한 노사 모두의 부정적인 견해를 읽을 수 있음.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일할 한국인근로자가 부족하기 때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낮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노무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함.

➤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이 차지하는 주된 이유 :
내국인력 기반 약화, 노무비 부족

4.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 분석

다. 건설현장의 일자리 감소 규모 추정

노무비 부족에 따른 건설현장의 대응

수주경쟁으로 인해
입찰가 낮게 제시

노무비 삭감이
일반적인 방법

낙찰률 80%이상 : 정상적인 작업팀 운용

낙찰률 낮아질수록 : 작업팀 감축 및 외국인력 대체 발생

- ❖ 골조 관련 직종이나 내장목공 등의 경우에는 70~90% 정도로 외국인력의 대체 정도가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전체 직종의 평균 정도를 추정하여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자 함

취업자 중 건설기능인력 감소 규모 추정 방법

- 대상 기간 : 2007~2009년
- 대상 공사 : 낙찰률이 낮고 자료 확보가 용이한 최저가낙찰제 시행 공사
- 추정 방법 : 건설현장 고용행태로부터 일자리 감소 원인으로 지적된 ‘작업 팀 구성원의 감축’과 ‘외국인력에 의한 내국인 대체’를 수량화하여 추정
 - 상실된 일자리 수는 공사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배분됨. 낙찰률 80% 이상은 작업 팀 감축이나 외국인 고용이 없다고 가정함.
- 이상적인 방법 : 낙찰률별로 완성된 공사에 실제 투입된 근로자수를 비교하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가용한 건설근로자수 자료가 부족함.

낙찰률	건설현장의 대응		투입 인원 변화 예시			내국인 일자리 감소 효과		
	작업팀 감축	내국인 대신 외국인고용	작업팀 인원	내국인	외국인	계	작업팀 감축	내국인 대신 외국인고용
80% 이상	정상 투입	대체 없음	10명	10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70%~79%	10% 감축	대체 없음	9명	9명	없음	10%	10%	없음
60%~69%	20% 감축	30% 대체	8명	5.5명	2.5명	45%	20%	25%
60% 미만	20% 감축	50% 대체	8명	4명	4명	60%	20%	40%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기능인력 수 : 당해 연도 전체 건설투자 규모와 기능인력 수로부터 비례적으로 유추함. 통계상의 취업자 수에 포함됨.
- 외국인력 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조사이므로 외국인근로자는 드러나지 않고 내국인 수만 집계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장에 실제 존재하는 근로자이나 통계상으로는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감축된 작업 팀원 수 :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사라진 일자리 수임.

4.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 분석

다. 건설현장의 일자리 감소 규모 추정

2007~2009년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시행 공사의 일자리 감소 규모 : 약 17만개

〈2007~2009년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의 내국인 일자리 상실 규모 추정〉

2007년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시행 공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중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수 : 277개소 수주금액 : 약 14조원 건설기능인력 : 144,381개(내국인) 	내국인 대신 외국인 고용 (통계에는 미반영, 현장에는 존재) 51,190개 작업 팀 감축으로 사라진 일자리 43,851개	상실된 내국인 일자리 합계 95,040 개	2008년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시행 공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중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수 : 256개소 수주금액 : 약 15조원 건설기능인력 : 115,355개(내국인) (통계에 반영) 	내국인 대신 외국인 고용 (통계에는 미반영, 현장에는 존재) 14,902개 작업 팀 감축으로 사라진 일자리 20,548개	상실된 내국인 일자리 합계 35,451 개	2009년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시행 공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중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수 : 332개소 수주금액 : 약 22조원 건설기능인력 : 197,315개(내국인) (통계에 반영) 	내국인 대신 외국인 고용 (통계에는 미반영, 현장에는 존재) 12,997개 작업 팀 감축으로 사라진 일자리 23,306개	상실된 내국인 일자리 합계 36,302 개
--	--	--	---	--	--	---	--	--

〈2007~2009년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의 내국인 일자리 상실 규모 요약〉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낙찰률	금액 (조원)	계 (개)	작업팀 감축	외국인 고용	금액 (조원)	계 (개)	작업팀 감축	외국인 고용	금액 (조원)	계 (개)	작업팀 감축	외국인 고용
계	14.0	95,040	43,851	51,190	15.2	35,451	20,548	14,902	22.3	36,302	23,306	12,997
80% 이상	0.4	0	0	0	0.5	0	0	0	1.8	0	0	0
70% ~ 79%	2.8	3,208	3,208	0	10.5	8,854	8,854	0	16.9	13,558	13,558	0
60% ~ 69%	10.7	90,285	40,127	50,158	4.1	25,458	11,315	14,143	3.3	19,495	8,664	10,830
60% 미만	0.1	1,547	516	1,031	0.1	1,138	379	759	0.3	3,249	1,083	2,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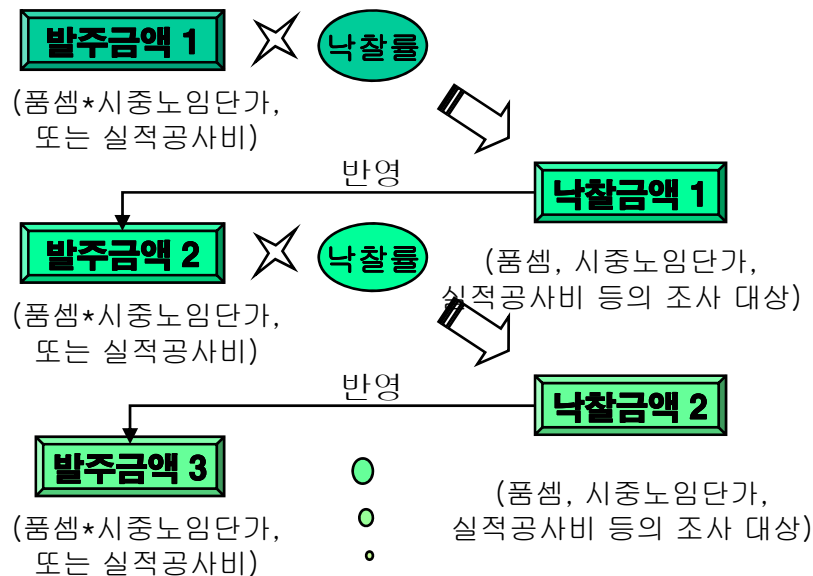
자료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정보는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참조, 건설기능인력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

4.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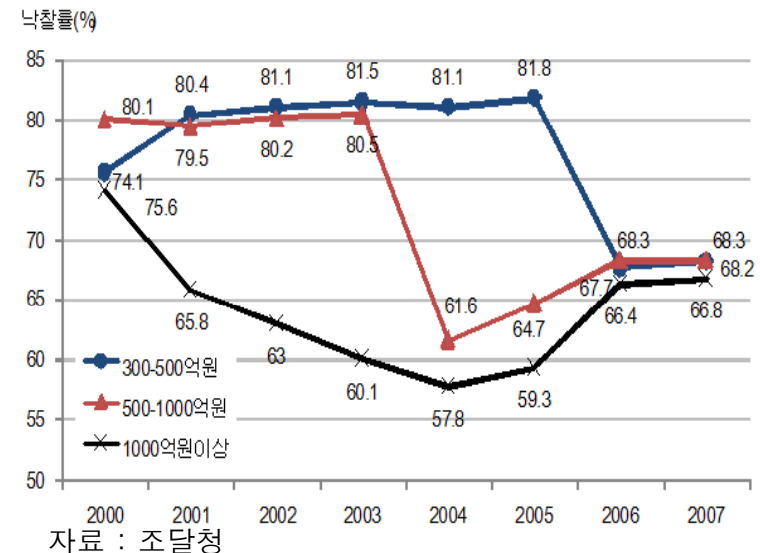
라.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가 더욱 심화될 우려 : 노무비 삭감 강화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낙찰률 저하와 연쇄적 하락 가능성

〈발주금액과 낙찰금액의 연쇄적 하락 구조〉



〈최저가낙찰제 도입에 따른 낙찰률 추이〉



자료 : 이영환.구본상(2008.11), 최저가낙찰제 건설현장의 실태분석과 제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 정부의 10% 예산절감 정책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 농후
- 정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의 적용을 100억원 이상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함.
- 수주 경쟁에서 가장 삭감되기 쉬운 노무비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현행 입·낙찰제도 하에서 낙찰률 및 노무비는 연쇄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향후 건설업의 일자리는 더욱 감소될 가능성이 높음.



주요 내용

1.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소진?
2. 건설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
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구조 분석
4.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 분석
5.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6. 일자리 창출 전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전략의 기본 방향

건설인력 수요 측면

- **일자리 증가** ← 건설투자 확대
- **적정 작업 팀 투입** ← 적정 공사비 특히, 적정 노무비 확보

건설인력 공급 측면

- **내국인력 공급 기반 확충** ←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 적정 노무비 확보
- **외국인력의 보완적 활용** ← 합법적 근로자 고용여건 조성 ← 적정 규모 산정, 고용관리 강화, 적정 노무비 확보
- **해외건설 일자리에 취업** ← 해외건설 인력 육성

노무비 확보+전달 과정의 신뢰성 회복 : 하수급자를 거쳐 근로자에게까지 전달

- 발주자가 상정한 공사금액 특히, 노무비가 원수급자와 하수급자를 거쳐 건설근로자에게까지 전달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노무비 전달과정에서 대한 불신 불식 필요
- 이러한 신뢰를 줄 수 없다면 건설산업의 낙찰률 상향 요구는 사회적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움.
 - 요컨대, 여타 일자리 창출 전략도 병행하되,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전략의 근간은 ‘**적정 노무비 확보**’ 및 ‘**노무비 전달 과정의 신뢰성 회복**’에 있음.

5.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전략의 기본 방향

미국의 prevailing wage 사례 **: 공공공사 낙찰률이 대체로 90% 이상**

- **개념 및 제재** : prevailing wage는 연방·주·시 차원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원가 반영의 기준이자 지역별 직종별 최저임금임. 공공발주자는 prevailing wage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해야 함. 위반 시 일정 기간 동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함.
- **도입 취지 및 시기** : 임금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을 막아 당해 주 건설업체의 수주를 촉진하고 당해 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음. 연방 차원에서는 1931년에 Davis-Bacon법이 제정됨.
- **도입 효과** : 건설업체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함으로써 원수급자-하수급자-근로자 모든 구성원의 상생을 가능케 함. 또한 임금 삭감을 억제해 내국인 고용 여건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에 기여함.
 - 한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보호해 숙련인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함.

적정노무비 확보 및 임금 지불을 통한 내국인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촉진

- 미국 (prevailing wage) 및 호주 (Award system)의 사례를 참조하여 사업주가 적정 노무비를 확보해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제도 내부에 노무비가 말단의 근로자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장치 마련
 - 적정 노무비 확보
 - 전달과정의 신뢰 회복
- 관련 당사자의 역할 및 지속 가능한 상생 촉진
 - **국민** : 적정 공사비 지불 및 고품질의 건설생산물 확보
 - **정부** : 적정 임금 수준 조사 및 공표
 - **공공 발주자** : 공표된 임금을 공사원가에 반영, 위반 시 당해 업체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
 - **원·하수급자** : 정부가 공표한 임금표를 현장에 게시, 근로자에게 임금 지불
 - **근로자** : 임금 수급 및 공표된 임금 여부 확인, 위반 시 발주자에 신고

5.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나. 적정 노무비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

추정 방법

- **낙찰률 80%의 공사비를 확보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 금액과 창출되는 일자리 수 추정**
- **추가 금액이란 낙찰률을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낙찰률 70%대는 5% 증액, 60%대는 15% 증액, 60%대 미만은 30%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함.**
- **증가된 일자리수란 노무비 확보를 통해 작업 팀을 복원하고 외국인 대신 내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증가되는 일자리수를 말함. 내국인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보완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상정함. 약 5%의 수치는 2009년 건설기능인력 수급 분석 결과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외국인력 비중임.**

2007년~2009년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공사 대상

2007년			2008년			2009년		
추가 금액 ¹⁾ (조원)	증가된 일자리수 ²⁾ (개)	1조원 당 일자리수 ³⁾ (개)	추가 금액 ¹⁾ (조원)	증가된 일자리수 ²⁾ (개)	1조원 당 일자리수 ³⁾ (개)	추가 금액 ¹⁾ (조원)	증가된 일자리수 ²⁾ (개)	1조원 당 일자리수 ³⁾ (개)
1.8	52,102	29,353	1.2	29,663	25,353	1.4	24,932	17,435

주 : 1) 추가금액이란 낙찰률을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낙찰률 70%대는 5% 증액, 60%대는 15% 증액, 60%대 미만은 30%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함.

2) 증가된 일자리수란 노무비 확보를 통해 작업 팀을 복원하고 외국인 대신 내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증가되는 일자리수를 말함. 내국인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보완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상정함. 약 5%의 수치는 2009년 건설기능인력 수급 분석 결과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외국인력 비중임.

3) 1조원 당 일자리 수는 2007년에는 11,414개, 2008년에는 11,341개, 2009년에는 10,638개였음.

자료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정보는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참조
건설기능인력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

5.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나. 적정 노무비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과도한 공사비 절감에 의한 신규 투자의 일자리 창출”
＜ “적정 공사비 지불에 의한 기존 공사의 일자리 창출”

- 일반적으로 1조원 당 일자리 수는 2007년에는 11,414개, 2008년에는 11,341개, 2009년에는 10,638개였음. 하지만 낙찰률을 80%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 금액 1조원 당 일자리 수는 2007년에는 29,353개, 2008년에는 25,353개, 2009년에는 17,435개로 추정됨.
- 따라서 “과도한 공사비 절감에 의한 신규 투자” 보다 “기존 공사에 적정 공사비 지불” 이 일자리 창출에 훨씬 효과적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적정 노무비 확보는 무리한 공기 단축을 예방하고 적정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품질 제고 및 건설인력 공급 기반 강화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함.

다. 외국인근로자의 보완적 활용 : 불법체류자 진입 억제

적정 규모 산정 및 합법적 고용 유도 ⇒ 내국인 대체 억제를 통한 일자리 보호

- 건설업종 차원의 적정 도입 규모 산정
- 현장별 외국인력(합법) 고용상한제 운영

5.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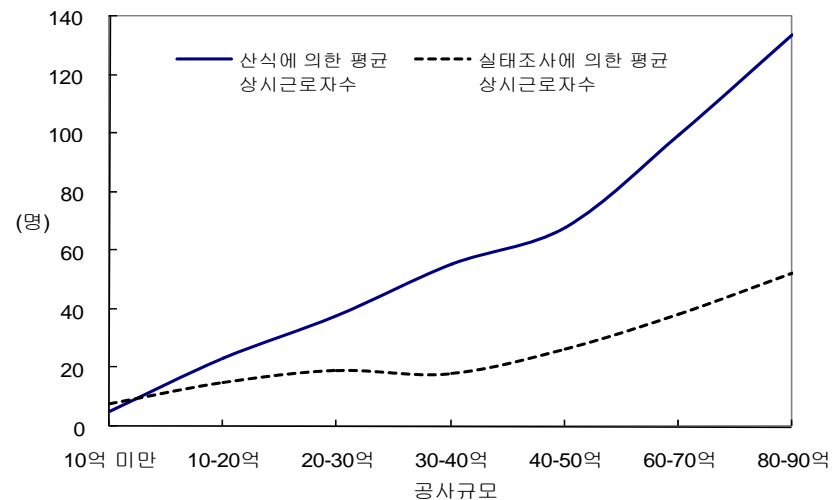
라. 다수 고용 사업주 우대 및 일자리 계측을 위한 고용관리 강화

다수 고용 사업주 우대 방안 마련 : 재해율 산식에 실제 피보험자수 반영

- 내국인근로자 및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주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현실화함.
- 재해율은 PQ에 반영되어 수주 가능성에 영향을 주므로 일반건설업자에게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산식의 분모인 상시근로자를 총 공사금액과 노무비율을 활용하여 추정함으로써 불합리함.
 - 총공사금액과 노무비율을 활용하여 추정할 경우 공종 및 규모에 따른 투입근로자수의 차이가 무시되기 때문임.
- **재해율(=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을 산정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상시근로자수’를 **피보험자관리 자료에 드러난 ‘실제 근로자수’**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도록 함.

- 상시근로자수가 많아질수록 재해율 하락
- 내국인근로자 및 합법외국인근로자 고용 촉진으로 피보험자관리 강화 효과 기대
- 이때 재해율 지표의 현실성 상승

건설현장의 공사규모에 따른 실제 및 추정 상시근로자수 격차 :
산식에 의한 재해율 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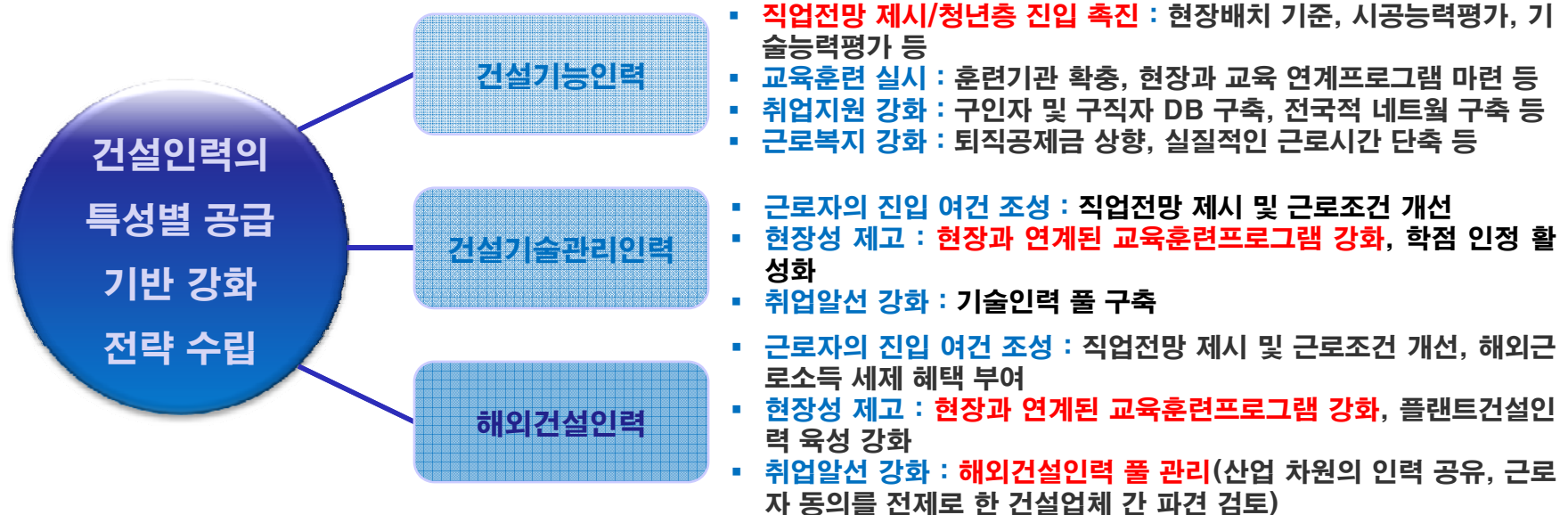
5.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라. 다수 고용 사업주 우대 및 일자리 계층을 위한 고용관리 강화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속한 일자리 파악 : 민간카드 및 건설고용보험카드 활성화

- 건설현장의 일자리 동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자카드 활용을 촉진함. 사회보험 신고 등과 연계시키고 여기에서 근로자수를 파악할 수 있음.
-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자발적으로 고액의 다기능 전자카드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사회보험 신고 및 피공제자 관리 업무와 연계시킴.
- 중소기업 이하 건설현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기능 전자카드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무료로 보급되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

마.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인력 공급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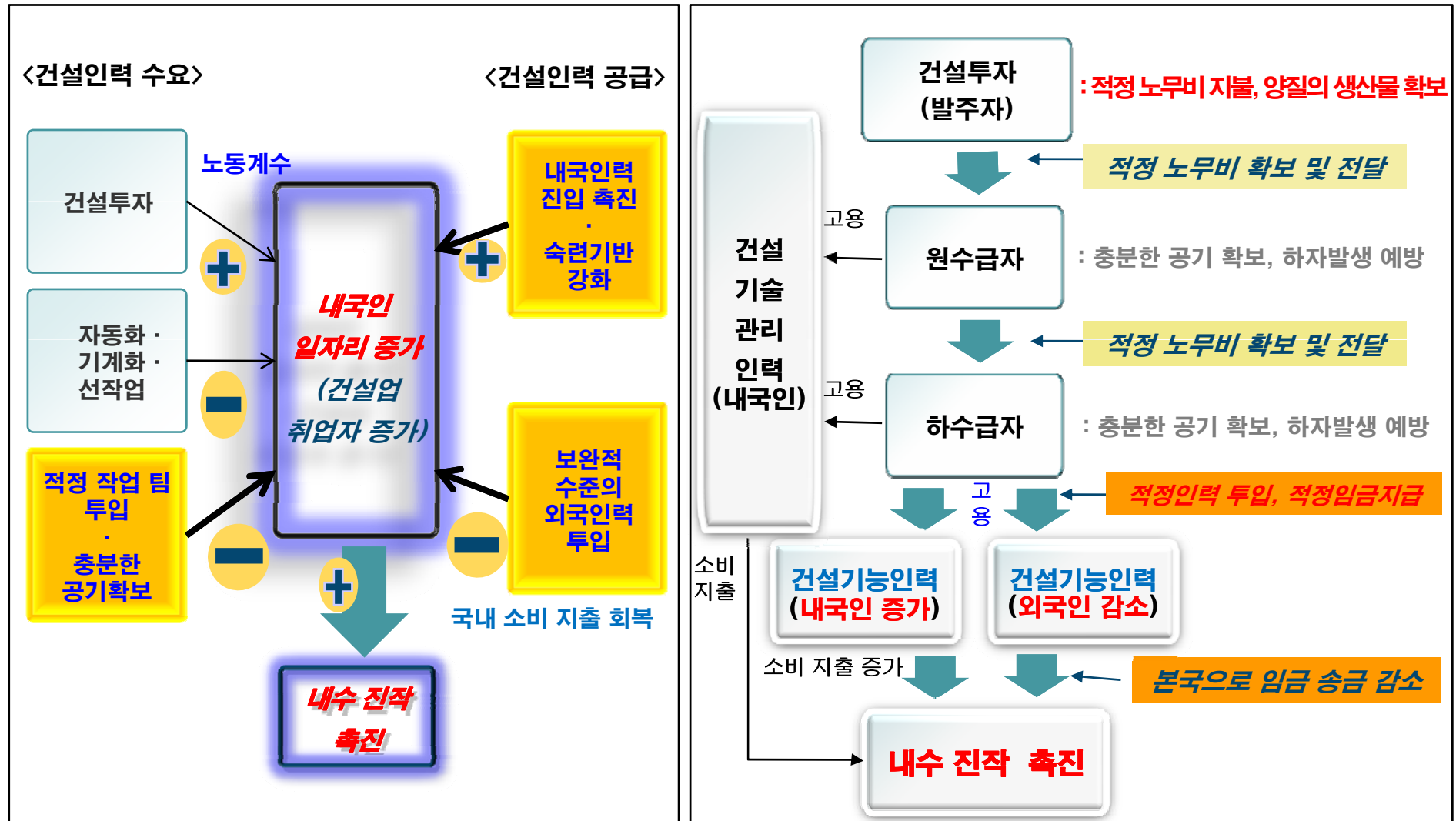


주요 내용

1. 문제 제기 :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소진?
2. 건설산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
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구조 분석
4.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 분석
5.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6. 일자리 창출 전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 일자리 창출 전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적정 노무비 확보 및 전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상생



6. 일자리 창출 전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

-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 존재
 - 노동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으로서 ‘건설투자’ 전략 유효**
- 건설산업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은 기능인력 감소
 - 기능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전략의 핵심 대상은 ‘기능인력’**
-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전략의 근간은 적정 노무비 확보 및 전달
 - 과도한 노무비 삭감으로 작업 팀 축소 및 외국인력 증가
 - 노무비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노무비 전달에 대한 불신 불식 필요
 - **미국 및 호주 사례와 같은 적정 노무비 확보 및 전달 전략 필요**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도한 공사비 절감에 의한 신규 투자” 보다 “기존 투자에 적정 공사비 지불” 이 훨씬 효과적
 - **‘불합리한 공사비 절감’ 보다는 ‘적정 공사비 지급 및 전달’ 전략 필요**
- 건설인력의 특성별 일자리 전략 필요
 - **기능인력, 기술관리인력, 해외건설인력 등 특성별 맞춤 전략 필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